

광주·전남 선수단 나란히 한 자릿수 순위 진입 '쾌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

광주 금 82·銀 62·銅 59 종합 5위
사격 비공인 세계新... 이화속 5관왕
전남 금 50·銀 55·銅 75 종합 9위
사격 이윤리 비공인 패럴림픽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나란히 한 자릿수 순위

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온 국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는 대회로 꾸며진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승부와 경쟁을 넘어선 화합과 존중을 선사하고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 경남에서 막을 올려 옛새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내년 부산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

이번 대회는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수 6166명과 임원 및 관계자 36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806명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3244개(정식 종목 기준)의 메달을 놓고 승부를 겨뤘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 22개 종목에 393명(선수 284명·임원 및 관계자 109명)이 참가해 금메달 82개와 은메달 62개, 동메달 59개 등 총 20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총 득점 12만3597.40점으로 5위에 올랐다.

특히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을 경신하면서 광주 선수단의 올해 대회 목표였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9일 오후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열고 옛새간의 열전의 막을 내리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한 자릿수 종합 순위를 훌쩍 뛰어넘어 2년 연속 톱5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대회에서 세웠던 68개였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 31개 종목에 700명(선수 435명·임원 및 관계자 265명)이 나서 금메달 50개와 은메달 55개, 동메달 75개 등 총 18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총 득점 10만5663.10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올해 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은 2022년 9만983.20점을 넘어 역대 원정 최다 득점에 성공했고, 대회 기간 중 경기단체 추천을 통해 17개 시도 중 가장 모범이 된 선

수단에게 주어지는 으뜸선수단상을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광주 선수단에서는 5관왕 1명과 4관왕 2명, 3관왕 12명, 2관왕 20명 등 35명의 다관왕이 탄생했고, 전남 선수단에서도 4관왕 1명과 3관왕 6명, 2관왕 10명 등 17명의 다관왕이 배출됐다.

양궁의 이화속(광주시청)은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유일한 5관왕에 올랐다. 이화속은 여자 리커브 개인전 랭킹라운드1을 시작으로 여자 리커브 개인전 랭킹라운드 종합과 혼성 리커브 2인조, 여자 리커브 2인조, 여자 리커브 개인전을 모두 석권하며 홀로 금메달 다섯 개를 책임졌

다.

또 광주 선수단에서는 탁구의 김성욱(광주시청)과 사격의 박승우(광주시청), 전남 선수단에서는 육상트랙의 김정하(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4관왕 소식을 알렸다.

김성욱은 여자 단식을 시작으로 여자 복식과 혼성 복식, 여자 단체전을 석권했고 박승우는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을 시작으로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 혼성 50m소총 복사 R9 개인전, 혼성 50m소총 복사 R9 단체전 정상에 올랐고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정하는 남자 800m를 시작으로 남자 5000m와 남자 1500m를 제패한 뒤 체전의 대미인 남자 10km 마라톤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다.

신기록도 무더기로 쏟아졌다. 광주 선수단에서는 세계신기록 1건과 한국신기록 12건, 대회신기록 9건이 나왔고 전남 선수단에서도 패럴림픽신기록 1건과 한국신기록 6건, 대회신기록 1건이 새로 쓰였다.

박승우와 임주현, 김근수, 박동안(이상 광주시청)은 사격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에서 세계신기록인 2023년 프랑스의 1898.3점보다 3.9점 높은 1902.2점을 합작했다.

이윤리(완도군청)는 사격 여자 50m소총 3자세 R8 개인전에서 패럴림픽신기록인 2021년 장추이핑(중국)의 457.9점보다 0.1점 높은 458.0점을 썼다. 다만 세계신기록과 패럴림픽신기록의 경우 비공인으로 남는다.

강기정 광주시장 겸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장은 "선수단 규모로는 17개 시도 중 13위인 우리 시가 이토록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은 선수단의 뜨거운 열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실 있는 장애인 체육 운영에 있다"며 "이번 대회를 위해 노력한 선수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겸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 역대 원정 최다 득점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 육성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단이 지난 29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3차전에서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외인 공백' 페퍼저축은행, 2연패 빠졌다

흥국생명에 1-3 고배... 자비치 결장 대체 선수 프리카노 합류 시점 미정



어깨 부상을 이유로 바르바라 자비치와 결별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외인 공백 속에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 일격을 당하며 승점 행진 중단과 함께 2연패에 빠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9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의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3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1-3(25-23, 25-27, 20-25, 15-25)으로 역전패했다. 이날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1승 2패(승점 4)를 기록하며 4위에 머물렀다.

외인 공백에도 페퍼저축은행은 분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앞서 어깨 부상을 이유로

바르바라 자비치와 결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천에는 동행했지만 출전하지는 않았다. 박정아와 이한비, 장위, 박은서가 고군분투했지만 투트쿠 부르주와 김연경, 김다은의 공격력을 버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바르바라 자비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최근 루마니아 CSO 불룬타리 2005에 입단했던 미국 국적의 아포짓 스파이커 테일러 프리카노를 영입했다. 프리카노는 체코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풍부한 해외 리그 경험을 지닌 베테랑으로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프리카노는 구단을 통해 "한국에서 땀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 V-리그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며 "페퍼저축은행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캡틴' 손흥민, 최근 1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빛났다

통산 4호 올해의 국제 선수상 박윤정 감독은 여자 지도자상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사진)이 최근 1년간 세계에서 가장 빛난 아시아 선수로 인정받았다. 박윤정 한국 여자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여자 지도자가 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9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AFC 애뉴얼 어워드 서울 2023'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됐으나 최근 회원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결정한다. 이에 공식 명칭에는 직전 해를 표기한다.

손흥민은 올해의 국제 남자 선수상을 거머쥐며 2015년과 2017년, 2019년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와 요르단의 무사 알타마리(HSC 몽펠리에)를 제쳤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김민재(FC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민재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일본의 미토마 카오루(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와 메흐디 타레미를 누르고 시상대에 올랐다.

또 박윤정 감독은 올해의 여자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국내 지도자가 이 상을 받은 것은 2010년 김태희 한국 여자 17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이후 13년 만의 쾌거다.

한편 황선홍 대전하나시티즌 감독과 설영우(FK 츠르베나 즈베즈다), 김해리(인천 현대제철 레드엔젤스)는 각각 올해의 남자 감독상과 올해의 남자 선수상, 올해의 여자 선수상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배준호(스톡크 시티 FC)와 케이시 페어(엔젤 시티 FC)도 올해의 남자·여자 유망주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하지 못했다. **한규빈 기자**

충장BC, 추계중학교야구대회 5연패 달성

충장베이스볼클럽(충장BC)이 2024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5연패를 달성했다.

충장BC는 28-30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광주지역 5개 중학교 야구팀이 리그전으로 승부를 가린 2024 우현건설배 겸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진흥중과 2승 1패를 기록했지만 최소 실점에 앞서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충장BC는 이번 대회 첫 경기(28일)에

서 무등BC에 3-4로 진 뒤 29일 동성중에 10-3, 6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30일 진흥중과의 마지막 경기에선 3회 4득점의 빅이닝을 만들면서 7-0, 5회 콜드게임으로 이겼다.

이로써 충장BC는 진흥중과 각각 2승 1패를 기록했지만 최소 실점으로 우승을 차지, 2020년부터 5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충장BC는 3경기에서 7실점, 진흥중은

11실점을 각각 기록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충장BC 류수길이 수상했다. 우수투수상은 충장BC 김도윤이 받았다. 충장BC 조성찬은 타격상(9타수 7안타 타율 0.778)과 최다타점상(7타점)을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다.

최다도루상은 충장BC 정지훈(8개), 감투상 진흥중 김준엽, 미기상 진흥중 정원이 각각 받았다.

충장BC를 우승으로 이끈 나갑남 감독은 감독상을, 김선주 부장교사는 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동환 기자**